

지 상 증 계

보현도량 안성 도피안사  
구국구세대법회 <9>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일시 : 불기 2549년 6월 26일
- 강사 : 김외숙 교수(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
- 주제 : 불자가족의 가정관리
- 법회 동영상 서비스 buddhanews.com

가족은 '커다란 나' ... 공경·감사가 행복열쇠

**☎** '육구충족의 무한성'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원은 유한한데, 만족은 끝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리'다. 가족이란 집단이 가진 육구의 합리적 해소가 가정관리의 핵심이다. 가족구성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가정관리인 셈이다. 그럼, 불교는 이 같은 속성을 지닌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또 과연 이들간 소통은 가능할까?

'불자로서 가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26일,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구국구세대법회' 아홉 번째 법회에서 방송통신대 김외숙 교수(가정관리학과)는 불자가족관리의 가장 큰 자원이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佛性)이 있다는 믿음'에 있다고 강조했다.

# 모두 불성 지닌 송고한 존재

결국, '선택'의 문제다. 가족의 목표는 육구에 기본을 두고 만들어진다.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육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인가가 가정관리의 핵심이다. 불교는 여기에 원만한 육구해결의 길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불교의 중도사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고 말했다. 금욕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탐닉하는 양 극단을 거부하는 중도야말로, 불자가족관리의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심리학자 매스로우의 육구단계설과 비교한다면, 중도는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가정은 수행터전이고 가족은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볼 때, 가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 견성, 인격완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는 재가신도의 경우, 이 목표와 더불어 장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럼, 불교는 자원사용을 통해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원의 총공급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김 교수는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처님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 여기는 인간에 대한 절대 긍정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이다. 즉 불교의 '일체실유불성(一切悉有佛性)'이 가족의 전인격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불성'을 태양과

구름에 비유해 말했다.

"광덕 스님은 '아무리 구름이 뒤덮고 있어도 그 위로 햇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며 불성을 태양에 비유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햇빛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것을 말한 거구나'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가족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자원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목표달성의 육구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가령 부모의 부유함이 자녀에게 장애도 될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의 유효성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 자아실현하는 수행 공동체

김 교수는 행복한 불자가족을 만들기 위한 불교 가치를 제시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이혼 증가, 가구 수 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가정 현실에 대해, "산업화이후 가족과 직장이 급속히 분리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불교는 이런 변화의 원인, 그 속에서의 가족구성원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강조했다. 즉 불교는 가정이 '수행공동체'로서의 기능과 함께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일생동안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잠시라도 돌이켜보게 하는 여유를 준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무든 도끼로 나무를 벨 것이 아니라, 우선 도끼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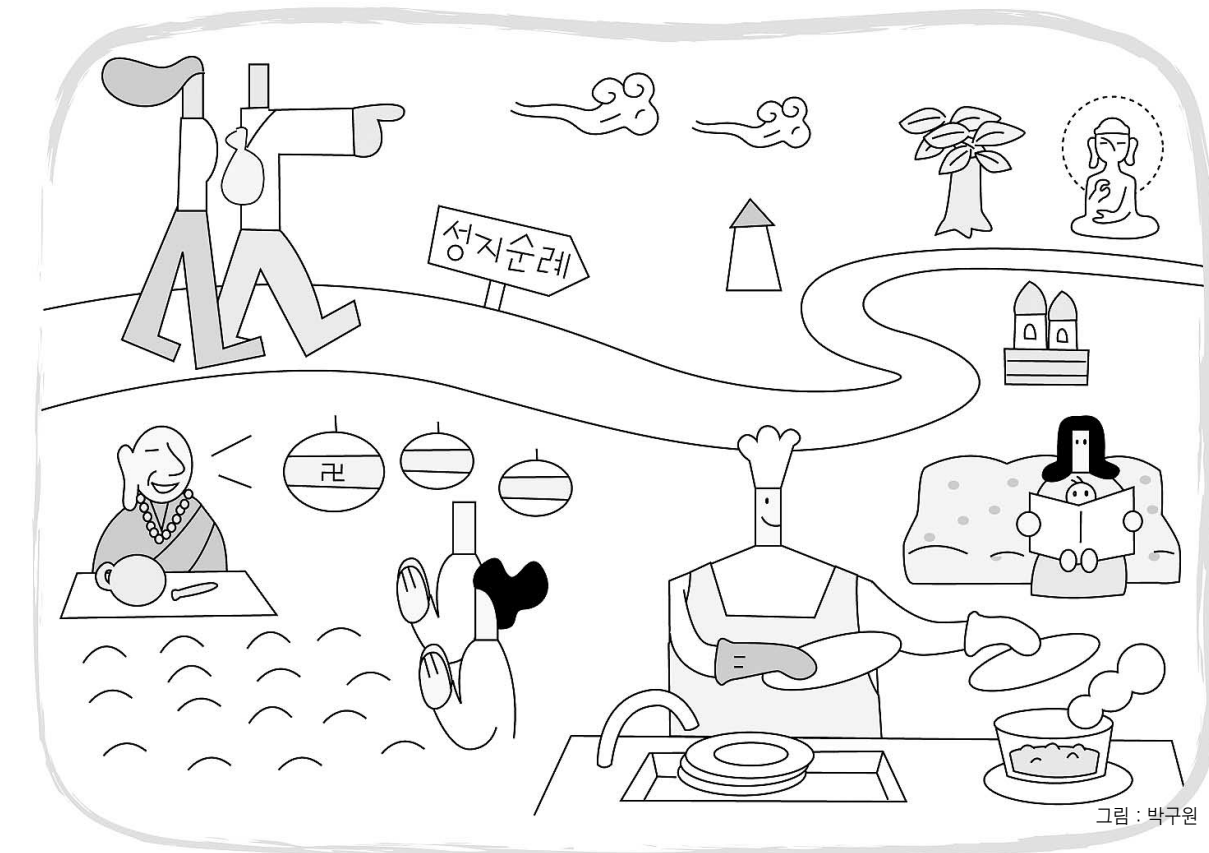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세워 나무를 베야 한다'는 비유를 들며, 하루 5분이라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혈연중심의 가족관을 벗어나 '연기관(緣起觀)'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간의 생존방식 자체가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연기관하기에 혈연중심의 편협한 가정관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연기적 관점은 '큰 나'로서 자신을 보게 해, 사회적 연대의 확대와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연기적 인식은, 가족구성원이 시공을 초월해 모든 생명체에 공경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기적 가르침은 지속가능한 가정의

소비생활법도 제시해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오만심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큰 효과입니다. 즉 타인과 자연 등 모든 관계 속에서 자원을 사용하게 해, 다음 세대의 육구 충족도 배려하게 만들어 줍니다."

# 가사는 가족 모두의 일

김 교수는 불자로서의 가정관리를 위한 조언으로 ▲남성의 가정 내 역할 증대 ▲가족여가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남성의 가사노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구성원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여성은 자기 육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역할 과정에서 오는 남녀

갈등이 가정내 불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불교의 평등사상입니다. 물론 불교교리와 무관한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문화가 불교에도 적지 않게 담겨있지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란 식의 성별로 고정된 역할개념을 경계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녀든 부모든 함께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평등한 관계를 가꾸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기 때문.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불자가족관리의 키워드로 '즐거움' '재미'를 제시했다. 이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여가생활을 위한 동반자가 돼야 하고, 가족구성원은 함께 '노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질의 응답

-김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매스로우의 육구단계설에서 최상위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결국, 자기 목표의 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자아실현의 발달은 제7발나식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번뇌와 망상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스로우의 자아실현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텐데요?

▲매스로우의 육구단계설에서 최상위가 자아실현입니다. 그 바로 밑 단계가 자아존중입니다.

서양심리학자의 이론에서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 경지의 자아실현을 염두해 두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의 발생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면, 자아존중은 아집이 있고, 나란 존재를 고집해 자기를 높게 보려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7발나식은 매스로우의 '자아존중' 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외숙 교수는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가정학 석사학위,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 한국가정관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등이 있다.



선학원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1회 수좌대회(1931년 9월 14일).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하 선리연구원)'을 개원한 (재)선학원은 선학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찾습니다. 이를 소장하고 계신 스님과 불자님은 연락을 주십시오. 단 한 건의 자료라도 좋습니다. 기증해주신 자료들은 선리연구원에서 그 성격에 따라 분류 및 보존하며, 선학원의 역사와 위상 정립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됩니다.

자료 예시

- 도서 : 선학원 관련 도서 및 정간물 등(특히 선학원 및 법보원 간행 불서)
- 박물관 : 선학원 관련 스님들의 유품 등
- 시청각자료 : 오디오, 사진, 슬라이드필름 등
- 문건자료 : 성명서, 회의록, 보고서, 팸플릿, 일기, 메모 등

기타 안내

- 선학원 부설 선리연구원의 '상임연구원'을 찾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선학원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 '커뮤니티-문의게시판'에 '자료 제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연락처, 자료에 대한 설명 등을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734-9653~6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 주지 취임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주지 토진스님의 취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수회 동참하시어 많은 격려와 축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불기 2549(2005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음력 6월 8일)

■장소 : 수국사 금법당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 취임 법회 봉행위원회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 수국사 / TEL : 02)356-2002 FAX : 02)359-6297